

<論尹師魯墓誌銘>을 통해 본 歐陽修의 碑誌文의 창작이론

노 장 시*

<目 次>

- | | |
|---------------|---------------|
| I. 서론 | 2. 제제의 집중과 선택 |
| II. 碑誌文의 창작이론 | 3. 내용의 진실성 추구 |
| 1. 간결한 문체와 함축 | III. 결론 |

I. 서론

歐陽修는 정치·문학 방면에서 師友였던 尹洙가 慶曆 7년(1047년) 정치적인 좌절을 겪고 곤궁하게 죽자, 歐陽修는 이듬해(1048년) 그의 죽음을 에 통해 하며 <尹師魯墓誌銘>을 지었다.

尹洙(1001~1047)는 字가 師魯이며, 정치와 문학 방면에서 歐陽修의 지기였지만, 일생동안 자신의 뜻을 펼 기회를 만나지 못하고 불우한 삶을 마쳤다. 尹洙는 歐陽修보다 여섯 살 연장으로, 歐陽修와의 조우는 天聖 9년(1031년) 3월 歐陽修가 西京推官의 벼슬로 西京인 洛陽으로 오면서이다. 당시 西京留守인 錢惟年은 五代 吳越國의 왕 錢俶의 이들로, 宋朝에 귀순한 후 將相을 지낸 명망이 높았던 사람이다. 그는 화려한 문사로 대표되는 '西昆派'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문학을 좋아하고 인재를 아껴, 그의 막부에는 많은 문인 명사들이 모여들었다. 歐陽修도 여기에서

* 영남대학교 강사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친밀했던 사람이 梅堯臣과 尹洙였다. 당시 梅堯臣은 시에 뛰어났고, 尹洙는 고문을 잘 하였다. 尹洙는 특히 《春秋》에 밝았으며, 그의 문장도 《春秋》의 필법을 배워 문체는 간략하고 이치는 정밀하였다.¹⁾ 歐陽修 자신도 이러한 尹洙의 필법을 중시하여 자신의 문체로 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²⁾

景祐 3년(1036) 權知開封府로 있던 范仲淹과 權相으로 있던 呂夷簡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생겨 范仲淹은 饒州知州로 폄직되었고, 歐陽修와 尹洙 등은 范仲淹을 구원하려다가 夷陵·鄧州 등으로 각각 폄직되었다. 이후 尹洙는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다가 끝내는 병을 얻어 46세로 세상을 떠났다. 歐陽修는 尹洙의 이러한 불우에 대해 여러 작품에서 안타까움을 나타내었는데³⁾, 그 대표적인 것이 <尹師魯墓誌銘>이다.

‘墓誌銘’이란 亡者의 생평을 쓴 글로, 돌에 새기어 무덤에 묻는다. ‘墓誌銘’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亡者의 사적이나 덕행 등을 散文으로 쓴 앞부분을 ‘誌’라 하고, 亡者에 대해 개괄적인 평가를 한 韻文로 쓴 뒷부분을 ‘銘’이라 한다. 옛날 사람들은 ‘銘’이 주가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산문으로 쓴 앞부분을 ‘序’라고도 하였다.

죽은 사람을 위해 神道碑를 세우거나 墓誌銘을 흙 속에 묻는 풍습은 육

- 1) 《范中正公集》卷6, <尹師魯河南集序>: “洛陽尹師魯, 少有高識, 不逐時輩, 從穆白長遊, 力爲古文. 而師魯深於春秋, 故其文謹嚴, 辭約而理精”
- 2) 程千帆 吳新雷 著, 《兩宋文學史》(上海古籍出版社, 1991) 37쪽.
“錢惟演留守西都時, 于府中起雙桂樓, 命歐陽修和尹洙作記, 修文千餘言, 洙止用五百字, 修服其簡古, “自此始爲古文”(見《河南邵氏聞見錄》卷八), 又歐 尹二人與謝絳(希深)同作<河南驛記>, “希深之文僅七百字, 歐公之文五百餘字, 獨師魯止用三百八十餘字而成, 語簡事備, 復典重有法.” 歐陽修在尹洙指出他“格弱字冗”的缺點后, 又別作一記, 更減師魯文廿字而成之, 尤完粹有法 師魯謂人曰“歐九真一日千里也”(見《湘山野錄》卷中)
- 3) 《歐陽修全集·居士集》卷49, <祭尹師魯文>: “辯足以窮萬物, 而不能當一獄吏; 志可以挾四海, 而無所措其身”.
《歐陽修全集·居士集》卷26, <尚書虞部員外郎尹公墓誌銘>: “嗚呼! 善人之爲善也, 生不赫赫於當時, 則其遺風餘思在乎人者, 必有時而著”
《歐陽修全集·居士集》卷31, <太常博士尹君墓誌銘>: “嗚呼! 師魯常勞其智於事物, 而卒蹈憂患以窮死”

조 귀족사회에서 완성되었다. 그러나 그때까지의 거의 모든 신도비나 묘지명은 죽은 사람의 생전의 공적을 찬미하고 예도의 뜻을 나타내는 극히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 문장도 한결같이 미사여구로 꾸민 四六駢儷文의 풍이었다. 그러나 구양수의 墓誌銘에는 무미건조한 미문의 나열은 없으며, 전통적인 형식을 대담하게 타파하고, 자유 활발한 고문을 구사하면서 고관대작에서부터 아낙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묘사했는데, 元刊本 《歐陽文忠公集》에는 ‘墓誌銘’이 모두 81편 수록되어 있다.

歐陽修는 〈尹師魯墓誌銘〉을 쓰면서 尹師魯의 장점인 문장·의론에 대해서는 간결하게 언급하고, 고인의 충의의 절조에 중점을 두고 묘사하였다.

그러나 이 글이 지어진 후 尹師魯의 가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글이 지나치게 간결하다 하여 불만을 가졌으므로, 歐陽修는 다시 〈論尹師魯墓誌銘〉을 써서 〈尹師魯墓誌銘〉을 어떤 의도로 썼는지 직접 해명하였다.

歐陽修는 〈論尹師魯墓誌銘〉을 통해 〈尹師魯墓誌銘〉의 저술 의도를 직접 서술하면서, 한 단락 혹은 한 문장 속에 표현하고자 한 자신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밝혀 놓았다. 따라서 이 글은 歐陽修의 碑誌文에 대한 창작이론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중국문학사에서도 아주 보기 드문 진귀한 자료이다. 歐陽修는 이 글에서 간결한 언어와 함축·제재의 집중과 선택 같은 창작방법에 관한 내용들을 상세히 분석하여 언급하였고, 또 墓誌銘을 지을 때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아부하는 등의 좋지 못한 기풍을 반대하고 사실대로 묘사하기를 주장하여, 墓誌銘을 짓는 작가의 엄숙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論尹師魯墓誌銘〉을 통해, 歐陽修가 주장한 碑誌文의 창작이론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碑誌文의 창작이론

歐陽修는 정치·문학 방면에서 師友였던 尹洙가 죽자, 歐陽修는 이듬해(1048년) 그의 죽음을 애통해 하며 <尹師魯墓誌銘>을 지었지만, 이 묘지명이 완성된 뒤 어떤 사람은 歐陽修의 의도를 모르고 비난하기도 하였고, 또 尹洙의 가족들은 문장이 너무 간략하다고 불만을 품고 마침내는 韓琦에게 墓表를 부탁하기에 이르렀다⁴⁾. 歐陽修는 이에 <論尹師魯墓誌銘>을 지어 해명하면서, <尹師魯墓誌銘>을 쓴 원칙들을 하나하나 밝히고 있다. 본 절에서는 <論尹師魯墓誌銘>에 나타난 歐陽修의 창작원칙을 ‘간결한 문체와 함축’·‘제제의 집중과 선택’·‘내용의 진실성 추구’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간결한 문체와 함축

歐陽修는 <論尹師魯墓誌銘>에서 “韓愈가 孟郊와 함께 聯句詩를 지을 때는 바로 孟郊의 시처럼 지었고, 樊宗師에게 묘지명을 지어줄 때는 바로 樊宗師의 글처럼 지었다. 나는 韓愈의 그러한 작문법을 흠모하였으므로, <尹師魯墓誌銘>을 쓸 때 뜻은 특별히 함축되고 말은 간결하게 하였다. 이것은 대개 尹師魯의 문체가 간결하면서도 뜻은 함축되었기 때문이다.(韓退之與孟郊聯句, 便似孟郊詩, 與樊宗師作志, 便似樊文, 慕其如此, 故師魯之志, 用意特深而語簡, 蓋爲師魯文簡而意深)⁵⁾”라고 하여, 歐陽修 자신이 尹洙의 작문법을 모방해서 尹洙의 墓誌銘을 ‘문체는 간략하고 뜻은 함축되게(文簡而意深)’ 집필하였음을 밝혔다. 그렇다고 해서 歐陽修가 尹洙의 墓誌銘만 ‘문체는 간략하되 뜻은 함축되게’ 지었던 것은 아니며, 사실상 碑誌

4) <歐陽修全集·居士外集> 卷19, <與杜訢論祁公墓誌書>: “尹氏子卒請韓太尉別爲墓表, 以此見朋友門生故吏 與孝子用心常異”

5) <歐陽修全集·居士外集> 卷23.

文을 짓는 일반적인 원칙으로 삼았다.

그런데 歐陽修의 해명의 글인 〈論尹師魯墓誌銘〉이 없이, 이 〈尹師魯墓誌銘〉만 읽어보면, 尹洙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文章·學問·議論 등에 대한 歐陽修의 서술이 너무 간략한 느낌이 든다. 따라서 작가의 의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또 尹洙의 가족들이 불만을 표시하였던 것도 어찌면 당연해 보인다. 歐陽修의 墓誌銘만 가지고는 尹洙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가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歐陽修가 어떤 원칙으로 〈尹師魯墓誌銘〉을 지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해명의 글인 〈論尹師魯墓誌銘〉이 그만큼 중요해진다. 그러면 歐陽修가 〈尹師魯墓誌銘〉과 〈論尹師魯墓誌銘〉이 두 글에서 ‘문체는 간략하고 뜻은 함축되게’ 지었다는 내용 부분과 해명부분을 먼저 옮겨보자.

〈尹師魯墓誌銘〉:

師魯는 河南 사람으로, 성은 尹씨요 이름은 洙이다. 그런데 천하 선비들은 그를 알든 모르든 간에 尹師魯를 칭찬하였으니, 이것은 당세에 그의 명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尹師魯를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의 문장과 학문을 떠받들고, 어떤 사람은 그의 의론을 찬미하며, 또 어떤 사람은 그의 재능을 칭송하기도 한다. 그의 충의의 절개는, 그가 곤궁함에 처했든 현달함에 처했든, 재난에 입했든 행운에 입했든, 옛날의 도를 지닌 사람에게도 부끄러울 것이 없었지만, 尹師魯를 칭찬하는 천하 사람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지 못하였다.

尹師魯는 문장을 지을 때 간결하면서도 법도가 있었다. 학문이 넓고 기억력이 좋았으며, 고금을 관통하여 알고 있었고, 특히 《春秋》에 뛰어났다. 그는 남들과 이야기할 때에는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하여 이치를 철저히 따진 뒤에 그만두었지, 말을 하다 구차히 그만둔다거나 남의 말에 망령되어 부화뇌동하지 않았는데, 이 점은 그를 능가할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일을 만났을 때는 어렵건 쉽건 용감하게 하였다. 그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받는 것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 받는 원인이 되었으므로 끝내는 곤궁하게 죽었다.……

銘文은 이러하다 : 깊이깊이 매장하고, 견고하게 봉하였네. 돌은 썩을 수 있으나, 명문은 마멸되지 않으리. (師魯, 河南人, 姓尹氏, 諱洙. 然天下之士識與不識皆稱之曰師魯, 蓋其名重當世. 而世之知師魯者, 或推其文學, 或高其議論, 或多其材能. 至其忠義之節, 處窮達, 臨禍福, 無愧于古君子, 則天下之稱師魯者未必盡知之. 師魯爲文章, 簡而有法. 博學強記, 通知今古, 長于《春秋》. 其與人言, 是是非非, 務窮盡道理乃已, 不爲苟止而妄隨, 而人亦罕能過也. 遇事無難易, 而勇于敢爲. 其所以見稱于世者, 亦所以取嫉于人, 故其卒窮以死. ……銘曰: 藏之深, 固之密, 石可朽, 銘不滅)

<論尹師魯墓誌銘> :

<尹師魯墓誌銘>에서 “천하 사람들은 그를 알든 모르든 간에 모두다 師魯의 문장·학문·의론·재능을 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그의 문장과 학문의 뛰어남이나 의론의 고명함 그리고 재능의 훌륭함은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다. 나는 또 너무 간략할까 걱정하여, 그 세 가지 일을 조목 조목 나누어 바로 뒷부분에 다시 서술하였다.

그의 문장에 대해서는 ‘간략하면서도 법도가 있었다(簡而有法)’라고 서술하였는데, 이 한 마디는 공자가 刪定한 六經 가운데에서도 오직 《春秋》만이 거기에 해당될 수 있다. 기타 五經은 공자가 직접 지은 문장도 아니어서 법도는 있을지라도 간결하지는 않다. 내가 尹師魯의 문장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세상의 식견 없는 사람들은 문장 의미의 輕重을 곰곰이 따져보지도 않고, 다만 말이 너무 적은 것만을 책망하여 “사로의 문장을 단지 한마디로 드러내 말한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

그의 문장을 서술하고 나서, 또 그의 학문에 대해 서술하기를 ‘고금을 관통하여 알고 있었다(通知古今)’고 하였는데, 이 말도 꼭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면, 오직 공자와 맹자뿐이다.

그의 학문을 서술하고, 그의 의론을 서술하면서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하여 이치를 철저히 따진 뒤에 그만두었지, 말을 하다 구차하게 그만둔다거나 남의 말에 망령되어 부화뇌동하지 않았다’라 하였는데, 이것 또한 맹자가 아니면 이 말에 해당될 수가 없다……

《춘추》의 필법은 침통함이 극에 달하면 달할수록 그 말은 더욱 깊은데, 예를 들면 “자반이 죽었다(子般卒)”고 한 것이 이것이고, 《시경》의

작가가 의도한 것도 책망함이 절실하면 절실할수록 그 말은 더욱 완곡하게 하였는데, “군자는 헤로한다(君子偕老)”는 것이 이것이다. 반드시 하늘을 보고 소리를 치고, 땅을 치며 통곡한 뒤에라야, 師魯에게 원한을 풀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의 銘文에 다만 ‘깊이깊이 매장하고, 견고하게 봉하였네. 돌은 썩을 수 있으나, 명문은 마멸되지 않으리.’라고만 하였다. 이렇게 쓴 의미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말로는 알릴 수 없더라도 다만 땅 밑에 깊고 견고하게 이 墓誌銘을 묻어서 썩지만 않는다면, 후세에 틀림없이 師魯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 말은 더욱 완곡하고 그 뜻은 더욱 절실하니, 《시경》을 쓴 사람의 의도와 같다. 그런데 세상의 식견 없는 사람들은 바로 “銘文에서 尹師魯의 德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師魯가 죄 없음을 변론하지 않아서 함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대개 앞에서 그가 窮達禍福에 임해서 행한 행동이 옛사람에 비해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했으니, 틀림없이 그가 범을 범했을 리 없었을 것인데, 하물며 원수들이 고발한 것에 대해 더 말할 것이 있는가! 그러므로 구구하게 해명할 필요가 없었다. (誌言, 天下之人 識與不識 皆知師魯文學議論材能. 則文學之長, 議論之高, 材能之美, 不言可知. 又恐太略, 故條析其事, 再述于後. 述其文, 則曰, 簡而有法. 此一句, 在孔子六經, 惟春秋可當之. 其他經非孔子自作文章, 故雖有法, 而不簡也. 修于師魯之文不薄矣. 而世之無識者, 不考文之輕重, 但責言之多少, 云師魯文章不合只著一句道了. 即述其文, 則又述其學曰: 通知古今. 此語若必求其可當者, 惟孔孟也. 既述其學, 則又述其論議云: 是是非非, 務盡其道理, 不苟止而妄隨. 亦非孟子不可當此語…… 春秋之義, 痛之益至, 則其辭益深, 子般卒是也. 詩人之意, 責之愈切, 則其言愈緩, 君子偕老是也. 不必號天叫屈, 然後爲師魯稱冤(一作怨)也, 故于其銘文, 但云, 藏之深, 固之密, 石可朽, 銘不滅. 意謂學世無可告語, 但深藏牢埋此銘, 使其不朽, 則後世必有知師魯者. 其語愈緩, 其意愈切, 詩人之義也. 而世之無識者, 乃云銘文不合不講德, 不辯師魯以非罪. 蓋爲前言其窮達禍福, 無愧古人, 則必不犯法, 況是仇人所告, 故不必區區曲辯也)

그러면 여기서 歐陽修의 〈尹師魯墓誌銘〉과 〈論尹師魯墓誌銘〉이 두 글을 직접 대조하면서, ‘문체는 간략하고 뜻은 함축되게’ 써야 한다는 내용을 먼저 분석해보자.

〈尹師魯墓誌銘〉에서 歐陽修는 “천하 선비들은 그를 알든 모르든 간에

師魯를 칭찬하였으니, 이것은 당세에 그의 명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師魯를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의 문장과 학문을 떠받들고, 어떤 사람은 그의 의론을 찬미하며, 또 어떤 사람은 그의 재능을 칭송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尹洙의 문장과 학문이 어떠하였기에 사람들이 떠받들고, 의론이 얼마나 고명하였기에 사람들이 찬미하며, 재능은 어떠하였기에 칭송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바로 이 점이 사람들이 비난하고 尹洙 가족이 불만을 갖게 된 첫 번째 원인일 것이다.

여기에 대해 歐陽修는 <論尹師魯墓誌銘>에서 “천하 사람들은 알든 모르든 간에 모두 다 師魯의 문장과 학문·의론·재능을 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그의 문장과 학문의 뛰어난·의론의 고명함·재능의 훌륭함 등은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고 해명하였다. 즉, 尹洙의 문장과 학문·의론·재능에 대해서는 천하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으므로, 번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 ‘간결(簡)’하게 처리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이 말이 너무 간략한 것 같아서, 그의 문장에 대해 “師魯가 문장을 지으면 간결하고도 법도가 있었다(簡而有法)”는 말을 <尹師魯墓誌銘>에 보충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비난하는 사람들은 ‘簡而有法(간결하고도 법도가 있었다)’라는 이 네 글자만 가지고 尹洙의 문장을 칭찬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여겼던 것 같다. 《捫蝨新話》에서도 이 점에 대해 “세상 사람들은 이 때문에 公을 의심하였네, 평소 尹師魯와 매우 사이가 좋아서 그의 문장에 대해 극찬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인색한 바가 있는 것 같으니, 어찌된 일일까?(世以此疑公, 平日與師魯厚善, 亟稱其文字, 乃於此若有所惜, 何哉?)” 하고, 세상 사람들이 의아해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들을 감안해볼 때, 尹洙에 대한 歐陽修의 평가에 대해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표시했던 것 같다.

그래서 歐陽修는 <論尹師魯墓誌銘>에서 다시 “그의 문장에 대해서는 ‘간략하면서도 법도가 있었다(簡而有法)’라고 서술하였는데, 이 한 마디는 공자가 刪定한 六經 가운데에서도 오직 《春秋》만이 거기에 해당될 수

있다. 기타 五經은 공자가 직접 지은 문장도 아니어서 법도는 있을지라도 간결하지는 않다. 내가 尹師魯의 문장을 결코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세상의 식견 없는 사람들이 문장 의미의 輕重을 곰곰이 따져보지도 않고 다만 말이 너무 적은 것만을 책망하여, ‘師魯의 문장을 단지 한마디로 드러내 말한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라고 해명하였다.

즉, ‘簡而有法’은 六經 가운데에서도 孔子가 친히 지은 《春秋》만이 거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여, 상당한 무게를 두고 칭찬한 말임을 암시하고 있다. 사실 歐陽修 말대로 六經 중에서 《春秋》만이 공자가 직접 저술한 것이고, 《春秋》 이외의 五經에 대해서 孔子는 단지 정리하여 서술만 하였지 창작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歐陽修 자신이 尹洙의 문장을 ‘簡而有法’하다고 네 글자로 특징지은 것은 六經 가운데 孔子가 직접 저술한 《春秋》에만 해당된다고 하여, 尹修의 문장을 극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春秋》의 필법은 침통함이 극에 달하면 달할수록 그 말은 더욱 깊은데, 예를 들면 ‘자반이 죽었다(子般卒)’고 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하여, 《春秋》의 필법에 대해 언급하였다.

孔子가 《春秋》를 저술하면서 ‘한 글자 한 구절마다 글자의 쓰임이 적절한지 않은지 엄격히 따져 쓰기[褒貶]’를 중시한 ‘春秋筆法’을, 歐陽修는 ‘침통함이 극에 달하면 달할수록 그 말은 더욱 깊었다’라고 표현하였다. 즉, 심각한 일을 서술할수록 더욱더 의미를 함축하였음을 설명한 것이다. 그 단적인 예로써 歐陽修는 ‘자반이 죽었다(子般卒)’는 표현을 들고 있다. 子般은 魯 莊公의 태자로 莊公이 죽자 임금으로 즉위하였으나, 얼마 되지 않아 慶父가 보낸 사람에게 살해되었다. 그런데 孔子는 《春秋》 장공 31년 條에서 “겨울, 시월 기미 일에 자반이 졸하였다(冬, 十月己未, 子般卒.)”⁶⁾라고만 썼다. 歐陽修가 ‘春秋筆法’의 대표적인 예로 ‘子般卒’을 인용한 이상, 여기에 무엇인가 깊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쓰인 글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즉위하여 임금의 신분인데도 그 작위 대신

6) 欽定四庫全書, 經部, 春秋類, 春秋左傳注疏, 卷9.

에 ‘子般’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썼고, 또 임금이 살해되었는데도 살해되었다는 殺자 대신에 일반인이 죽을 때 쓰는 卒자를 썼다는 것 정도는 알 수가 있다. 그러나 ‘子般卒’에서 겹으로 드러난 의미 외에, 어떤 의미가 함축되었는지는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주석을 보면, “先君의 장례를 아직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작위를 칭하지 않았고, ‘殺’자를 쓰지 않은 것은 ‘殺’자가 그의 이름자인 ‘般’자와 글자 모양이 비슷하여 피한 것이다(先君未葬, 故不稱爵; 不書殺, 諱之也.)”⁷⁾라고 하였다. 이 注釋을 통해, 불과 세 글자의 문장이지만, 孔子가 얼마만큼 깊이 글자를 고려하여 사용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 처럼 孔子가 《春秋》에서 한 글자라도 함부로 쓰지 않았듯이, 歐陽修 자신도 <尹師魯墓誌銘>을 쓰면서 얼마나 신중하였는지를 설명한 것이다. 따라서 墓誌銘에 쓴 말은 비록 간략하지만, 그 말속에 부여된 의미는 상당히 깊다는 것을 잘 해명한 부분이다.

尹洙의 학문에 대해서도 <尹師魯墓誌銘>에서 “고금을 관통하여 알고 있었다(通知古今)”라고 한마디로 요약하였는데, <論尹師魯墓誌銘>에서 歐陽修는 이 말을 孔子와 孟子만이 거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해명하였다. 또 尹洙의 議論에 대해서는 <尹師魯墓誌銘>에서 “그는 남들과 이야기할 때 是是非非를 가려 이치를 철저히 따진 뒤에 그만두었지, 말을 하다 구차히 그만두거나 남의 말에 망령되어 부화뇌동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점은 그를 능가할 사람이 없었다(是是非非, 務窮盡道理乃已, 不爲苟止而妄隨, 而人亦罕能過也)”고 하였는데, <論尹師魯墓誌銘>에서 歐陽修는 孟子만이 이 말에 해당된다고 해명하였다. 즉, 尹洙의 학문과 의론에 대해 서술은 간략하지만, 그 함축된 의미는 孔子와 孟子만이 비견될 수 있을 정도로 尹洙를 칭찬한 말이라는 것이다. 바로 ‘문체는 간략하고 뜻은 깊이 함축되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썼음을 밝히고 있다.

‘문체는 간략하고 뜻은 함축되게’ 써야 한다는 이 원칙은 銘文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7) 上同

〈尹師魯墓誌銘〉의 銘文에서 歐陽修는 “藏之深，固之密。石可朽，銘不滅。(깊이깊이 매장하고, 견고하게 봉하였네. 돌은 썩을 수 있으나, 명문은 마멸되지 않으리.)”라고 열 두 글자로 간략하게 썼다.

이 말에 대해 〈論尹師魯墓誌銘〉에서는 “《詩經》의 작가가 의도한 것도 책망함이 절실하면 절실할수록 그 말은 더욱 완곡하게 하였는데, “군자는 해로한다(君子偕老)”는 것이 이것이다. 반드시 하늘을 보고 소리를 치고, 땅을 치며 통곡한 뒤에라야, 師魯에게 원한을 풀어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의 명문(銘文)에 다만 ‘깊이깊이 매장하고, 견고하게 봉하였네. 돌은 썩을 수 있으나, 명문은 마멸되지 않으리.’라고만 하였다. 이렇게 쓴 의미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말로는 알릴 수 없더라도, 다만 땅 밑에 깊고 견고하게 이 墓誌銘을 묻어서 썩지만 않는다면, 후세에 틀림없이 師魯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 말은 더욱 완곡하고 그 뜻은 더욱 절실하니, 《시경》을 쓴 사람의 의도와 같다.”라고 하였다.

歐陽修의 해명을 요약해 보면, ‘《시경》을 쓴 사람들의 의도를 살려서 尹洙의 銘文을 지었다’는 것이다. 즉, ‘책망함이 절실하면 절실할수록 그 말은 더욱 완곡하게 하였다’라고 하여, 《春秋》의 필법과 마찬가지로 《詩經》의 필법 또한 심각한 일을 서술할수록 더욱더 의미를 함축하였음을 설명한 것이다. 그 한 예로 “군자는 해로한다(君子偕老)”는 작품을 인용하고 있는데, 《詩經·鄘風》의 〈君子偕老〉는 衛 宣公의 부인 宣姜을 풍자한 것이다. 宣姜은 행실이 음란하여, 군자를 섬기는 도를 잃었다⁸⁾. 그래서 이 시 첫머리에서 바로 ‘君子偕老’ 즉 ‘부부는 서로 마음을 다하고 지조가 있어야 한다’고 완곡히 풍자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책망함이 절실하면 절실할수록 그 말은 더욱 완곡하게 하였다(責之愈切則其言愈緩)”라고 한 것이다. 즉, 歐陽修는 자신이 쓴 銘文 또한 모두 합쳐 열 두 글자에 불과하지만, 그 말속에 부여된 의미는 상당히 깊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런데도 세상의 식견 없는 사람들이 “銘文에서 尹師魯의 德을 이야기

8) 欽定四庫全書，經部，詩類，毛詩注疏，卷4：‘君子偕老，刺衛夫人也。夫人淫亂，失事君子之道。’

하지도 않고, 사료가 죄 없음을 변론하지 않아서 합당하지 않다”고, 자신이 쓴 <尹師魯墓誌銘>에 대해서 비난하였다.

여기에 대해서 歐陽修는 또 <論尹師魯墓誌銘>에서 “대개 앞에서 ‘ 그가 窮達禍福에 임해서 행한 행동이 옛사람에 비해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했으니, 틀림없이 그가 법을 범했을 리 없었을 것인데, 하물며 원수들이 고발한 것에 대해 더 말할 것이 있는가! 그러므로 구구하게 해명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여, 이 말에 함축된 의미만으로도 尹洙가 법을 범했을 리 없으므로, 원수들이 죄를 뒤집어씌운 것에 대해 銘文에서 구차하게 일일이 서술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歐陽修가 <尹師魯墓誌銘>을 지을 때, ‘문체는 간략하고 뜻은 함축되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엄격히 지켰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2. 제제의 집중과 선택

歐陽修가 碑誌文 창작원칙으로 택한 또 하나의 방법은 제제의 집중과 선택이다.

碑誌文은 한정된 돌에 새겨야 하는 특성 때문에 집중과 선택을 통해 서술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歐陽修는 <尹師魯墓誌銘>에서 尹洙의 사적 가운데, 어떤 것을 집중하고 선택하였는지 <論尹師魯墓誌銘>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 원칙도 尹洙의 墓誌銘에만 적용된 것은 아니며, 碑誌文을 짓는 일반적인 원칙으로 삼았다.

그러면 먼저 <論尹師魯墓誌銘>을 통해 제제의 집중 부분을 먼저 살펴보자.

歐陽修는 ‘문체는 간략하고 뜻은 함축되게’ 碑誌文을 써야 한다는 원칙을 설명하면서, “천하 사람들은 알든 모르든 간에 모두 다 師魯의 문장과 학문·의론·재능을 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그의 문장과 학문의 뛰어난·의론의 고명함·재능의 훌륭함 등은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고 하여, ‘師魯의 문장과 학문·의론·재능’에 대해서 ‘간결(簡)’하게 처리했음

을 설명하였는데, 실제로는 尹洙의 문장과 학문에 대해서만 간결하게 처리하였고, 尹洙의 재능에 대한 서술은 앞의 설명과는 다르다. 尹洙의 재능에 관한 서술부분과 그러한 재능을 지니게 된 배경설명까지 포함한다면, <尹師魯墓誌銘>의 거의 절반 가까운 분량이 尹洙의 재능과 관련된 서술이다. 그렇다면 歐陽修가 <尹師魯墓誌銘>에서 중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서술한 내용은 尹洙의 재능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尹洙의 재능에 관한 부분은 <尹師魯墓誌銘>에서 여기에 대한 해명 부분은 <論尹師魯墓誌銘>에서 먼저 옮겨보자

<尹師魯墓誌銘> :

윤사로는 천하가 태평무사 할 때에도 홀로 군사에 관해 의논하기를 좋아하여 <敘燕> <息戍> 두 편을 지었는데, 세상에 유행하고 있다. 西夏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부터 5·6년 동안 그는 줄곧 그 전선에 있었다. 그러므로 그의 군사에 관한 의론은 더욱 정밀하고, 서쪽 변방의 일에 대해서는 더욱 상세하게 알고 있었다. 兵制에 관한 주장을 제기하고, 전쟁의 승패에 관한 요체를 논술하고, 현재의 각종 이해득실의 관계를 상세히 분석하였으며, 또 현지 청년을 향토 사병으로 훈련하여 외지에서 수자리 살려온 병사들을 대체함으로써, 변방의 비용을 절감하여 변방을 지키는 장구한 계책을 내어야 한다고 여겼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미처 시행되지도 않아서, 趙元昊가 신하라 칭하며 항복하여, 서쪽 변방의 계엄 상태가 해제되자, 尹師魯 또한 그곳을 떠나게 되었으며, 또 어떤 일로 인하여 죄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윤사로를 칭찬하는 천하 사람들도 이러한 그의 재능에 대해서만은 상세히 알지 못한다. (師魯當天下無事時, 獨喜論兵, 爲敘燕息戍二篇行于世, 自西兵起凡五六歲, 未嘗不在其間, 故其論議益精密, 而于西事尤習其詳, 其爲兵制之說, 述戰守勝敗之要, 盡當今之利害, 又欲訓土兵代戍卒以減邊用, 爲御戎長久之策, 皆未及施爲, 而元昊臣, 西兵解嚴, 師魯亦去而得罪矣, 然則天下之稱師魯者, 于其材能亦未必盡知之也)

<論尹師魯墓誌銘> :

그의 의론을 기술하고 나서, 또 그의 재능에 대해 기술하였다. 師魯가

몇 차례 폄적되고 西夏와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陝西의 전선에 있다 보니, 특히 서쪽 변방의 사정을 잘 알았으며, 그의 주장이 미처 시행되기도 전에 趙元昊가 신하라 칭하고, 師魯도 일에 연루되어 죄를 얻게 되었음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이렇게 한 것은 천하 사람들에게 師魯의 재능을 다 알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既述其學, 則又述其論議云: 是是非非, 務盡其道理, 不苟止而妄隨, 亦非孟子不可當此語. 既述其論議, 則又述其才能, 備言, 師魯歷貶, 自兵興便在陝西, 尤深知西事, 未及施爲而元昊臣, 師魯得罪. 使天下之人, 盡知師魯才能.)

위의 <尹師魯墓誌銘>의 인용문은 尹洙의 재능에 관한 서술부분만 옮겼고, 배경에 관한 부분은 생략하였다

<尹師魯墓誌銘>에서 歐陽修가 尹洙의 재능에 대해 이처럼 상세하게 서술한 이유는, “천하 사람들이 尹師魯의 재능을 다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즉 歐陽修는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尹洙의 문장과 학문 보다는 잘 알지 못한 尹洙의 군사적 재능에 대해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서술함으로써, 천하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작가가 많은 제재를 나열하는 것 보다, 꼭 소개할 필요가 있는 한 두 개의 제재를 집중해서 서술하는 것이 인물을 묘사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歐陽修는 이처럼 제재의 집중적인 묘사를 중시하였는데, 집중적인 묘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재의 선택이 중요하다. 그래서 歐陽修는 <論尹師魯墓誌銘>에서도 “그의 사적을 모두 다 열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 한두 가지만을 들어 진실의 증거로 삼았다(其事不可遍舉, 故舉其要者一兩事以取信)”라 하여, 제재 선택의 중요성을 설파하였다.

제재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歐陽修는 자신의 다른 글 속에서도 자주 언급하였는데, <與杜訢論祁公墓誌書>에서는 “저는 문자를 간략히 하기 위해 다만 大節만을 기록합니다(修文字簡略, 止記大節)⁹⁾”라고 하여, 제재

9) <歐陽修全集·居士外集> 卷19.

선택의 중요 기준이 大節임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 이외에 〈代人上王樞密求先集序書〉에서는 제제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문식이 지극해지면, 또 거기에 실린 말이 중대한 것인지 자질구레한 것인지에 따라서 문장이 멀리 전해지느냐 전해지지 않느냐가 나타나게 됩니다. (文至矣, 又繫其所恃之大小, 以見其行遠不遠也)¹⁰⁾

즉, 문장에 “실린 말이 중대한 것인지 자질구레한 것인지에 따라서 문장이 멀리 전해지느냐 전해지지 않느냐가 나타나게 됩니다.”라고 하여, 자질구레한 일들을 나열하기 보다는 중대한 일만 서술해야 후세에까지 그 문장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 또한 제제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內殿崇班薛君墓表〉에서도 이와 유사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내가 고찰해본 바로는 옛날의 소위 賢人·君子·功臣·烈士들의 墓誌銘이 후세에 드러나게 된 까닭은 그 말이 간결하였으므로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후세에 와서 쇠퇴하게 된 것은 말하는 자가 스스로 (후세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의심하여, 비로소 그 글을 번잡하게 하였다. 그래도 오히려 드러나지 않을 것을 근심하여, 또 그 행한 일들을 상세히 갖추어 썼으니, 이것은 오직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만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 내가 公의 墓誌銘을 쓰면서 ‘그의 형(薛奎)에게도 부끄러울 게 없다(不愧於其兄)’고 하였으니, 公의 墓誌銘은 말을 번잡하게 하지 않더라도 후세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다. (予考古所謂賢人君子功臣烈士之所以銘見於後世者, 其言簡而著. 及後世衰, 言者自疑於不信, 始繁其文而猶患於不章, 又備其行事, 惟恐不爲世之信也. ……予之銘公, 不愧於其兄, 則公之銘, 不待繁言而信也.)¹¹⁾

내용을 요약해보면, 옛날의 賢人·君子·功臣·烈士들의 墓誌銘이 후세

10) 《歐陽修全集·居士外集》卷17, 〈代人上王樞密求先集序書〉

11) 《歐陽修全集·居士集》卷24.

에까지 드러나게 된 까닭은 그 말이 간결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세에 와서 쇠퇴하게 된 것은 글을 번잡하게 쓰고, 또 그 행한 일들을 상세히 갖추어 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질구레하고 잡다한 일들을 상세히 쓰기 보다는, 대표적이고 중요한 일만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서술해야 후세에까지 전해질 수 있는 훌륭한 글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이 또한 제재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歐陽修는 <尹師魯墓誌銘>을 쓸 때 尹洙의 사적 가운데 모두 다 열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 한두 가지, 즉 忠義之節 중에 서도 다만 ‘글을 올려 范仲淹이 자신의 師友임을 말하여 그와 함께 폄적되기를 원한 일(上書, 言仲淹臣之師友, 愿得俱貶)’과 ‘병이 깊어 (임종이 가까워도) …… 손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끝내 개인의 일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일(病革, …… 與賓客言, 終不及其私)’ 이 두 가지 일만 특별히 선정하여 서술했던 것이다. 그러면 歐陽修가 특별히 제재를 선택하여 서술했다는 두 가지 일을 <尹師魯墓誌銘>에서, 여기에 대한 해명 부분을 <論尹師魯墓誌銘>에서 각각 옮겨보자.

<尹師魯墓誌銘> :

天章閣待制로 있던 范仲淹이 饒州로 폄적되자 諫官과 御史들이 그를 위해 諫言을 하지 않자, 尹師魯는 조정에 글을 올려 范仲淹이 자신의 師友임을 말하고, 그와 함께 폄적되기를 위하여, 이에 監郢州酒稅로 폄적되었다가, 다시 또 唐州로 옮겨갔다. 이때 부친상을 당하여 삼년상을 마치고, 다시 太子中允에 임명되었다가 河南知縣이 되었다. ……앞서 尹師魯가 渭州에 있을 때, 부하 장교 중에 그의 지휘를 어긴 자가 있어 군법에 따라 그를 참수하려다가 이루지를 못하였다. 그후 이 장교가 서울로 와서 글을 올려 師魯가 공금으로 그의 부장의 빚을 갚아주었다고 고발하여, 崇信軍節度副使로 폄적되었다가 均州酒稅로 이동되었다. 병을 얻었으나 의사와 약이 없어 들것에 실려 남양으로 와 의사를 찾았다. 병이 위독하여 안석에 기대어 앉아서, 앞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돌아보고도 아무런 가련한 기색도 띄지 않았고, 손님과 이야기를 하면서는 시종 자신 개인의 일에 관해서 한마

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향년 46세로 세상을 떠났다 (天章閣待制范公貶饒州, 諫官御史不肯言, 師魯上書, 言仲淹臣之師友, 愿得俱貶, 貶監郢州酒稅, 又徙唐州. 遭父喪, 服除, 復得太子中允, 知河南縣……初, 師魯在渭州, 將吏有違其節度者, 欲按軍法斬之而不果, 其後吏至京師, 上書訟師魯以公使錢貨部將, 貶崇信軍節度副使, 徙監均州酒稅. 得疾, 無醫藥, 昇至南陽求醫. 疾革, 隱幾而坐, 顧稚子在前, 無甚憐之色; 與賓客言, 終不及其私, 享年四十有六以卒)

<論尹師魯墓誌銘> :

이 세 방면은 다 군자들이 극히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지만, 그러나 師魯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지엽적인 것이었다. 그의 大節은 바로 仁義를 굳게 지키는 것이어서, 곤궁하던 현달하던 재난을 만나든 행운을 만나든 간에, (그가 행한 행동은) 옛날의 도를 지닌 사람에게도 부끄러움이 없었다. 그의 사적을 모두 다 열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 가운데 한두 가지 일만 들어 진실의 증거로 삼았다. 예를 들면 글을 올려 范仲淹을 변호하고 아울러 자신도 함께 폄적되기를 청한 것이나, 죽음에 임해서도 개인의 사사로운 일을 한 마디도 말하지 않은 것이 이것이다. 이러하다면 곧 평소 그의 忠義를 알 수 있고, 곤궁·현달·재난·행운에 임하여서, (행한 행동이) 옛 사람에 비해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此三者, 皆君子之極美. 然在師魯, 猶爲末事. 其大節乃篤于仁義, 窮達禍福不愧古人. 其事不可偏舉, 其事不可偏舉, 故舉其要者一兩事以取信. 如上書論范公而自請同貶, 臨死而語不及私, 則平生忠義可知也. 其臨窮達禍福, 不愧古人, 又可知也.)

尹洙의 문장·학문·군사적 재능 이 세 방면은, 군자들이 극히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지만, 尹洙 자신으로 보아서는 오히려 지엽적인 것이고, 尹洙의 大節은 바로 仁義나 忠義를 굳게 지키는 것이어서, 자신이 곤궁하던 현달하던 혹은 재난에 빠졌든 행운을 만났든 간에, 그의 仁義의 大節은 도를 지닌 사람에게도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大節에 관한 그의 사적을 모두 다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范仲淹을 변호하고 아울러 자신도 함께 폄적되기를 청한 일’과 ‘죽음에 임해서도 개인의 사사로운 일을 한 마디도 말하지 않은 것’만을 선택하여 서술하였다는 것이다.

즉, 이 두 가지 서술만으로도 평소 그의 忠義를 알 수 있으므로, 이것저것 잡다하게 다 쓸 필요가 없었다는 말이다. 바로 제재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서술 방법은 그가 지은 많은 碑誌文 속에 나타난다.

예컨대, 歐陽修가 부친의 묘 앞에 세우기 위해 쓴 <瀧岡阡表>¹²⁾에서는 ‘부친의 청렴결백함’, ‘부친의 효성’, ‘부친의 인자하고 후덕함’과 같은 몇 가지 제재만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서술하여, 부친에 대한 그리운 정을 유감없이 기술하였다. 그리고 梅堯臣 부인 謝씨를 위해 지은 <南陽縣君謝氏墓誌銘>¹³⁾의 경우도, 謝씨 부인이 ‘집안을 돌보는 것(治家)’, ‘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 것(知人)’, ‘세상 일을 걱정하는 것(憂世)’ 이 세 가지 제재만을 선택하여 묘사하였는데, 일반적으로 남편의 관직이나 명성을 과시한 다거나, 아무런 근거 없이 추켜세우기만 하는 범속한 묘지명의 창작방법에서 완전히 벗어나, 안빈낙도하고 선견지명이 뛰어난 여성의 형상을 진솔하게 그려내는 데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瀧岡阡表>·<南陽縣君謝氏墓誌銘> 등을 통해서도 歐陽修가 제재 선택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였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제재의 집중과 선택을 위해, 歐陽修가 사용은 또 하나의 원칙은 ‘互見(상호 보충해서 드러낸다)’한다는 말이다. ‘互見’이란 말은 같은 일을 중복해서 기록한다거나 출현시키지 않는, 즉 여기에서 드러내었으면 저기에서는 생략하고, 여기에서 생략하였으면 저기에서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¹⁴⁾ 이렇게 하는 주요 의도는 돌에 새기는 碑誌文의 특성을 고려하여, 간결함을 추구하면서도 주제를 강화시키고자 한 데 있다.

歐陽修가 <尹師魯墓誌銘>을 쓰면서도 제재의 집중과 선택을 위해서 이 ‘互見’의 방법을 이용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歐陽修의 언급을 <尹師魯墓誌銘>과 <論尹師魯墓誌銘>에서 각각 찾아보자.

12) <歐陽修全集·居士集> 卷 25.

13) <歐陽修全集·居士集> 卷 37.

14) 何寄彭, <歐陽修古文作法探析>, <宋代文學與思想>, (學生書局 民國 78.8), 293쪽.

〈尹師魯墓誌銘〉：

나와 사로는 형제 같은 친구였다. 나는 일찍이 그의 부친의 묘지명을 쓴 적이 있으므로, 여기에서 더 이상 그의 집안에 대해서는 나열하지 않는다. (余與師魯兄弟交，嘗銘其父之墓矣，故不復次其世家焉。)

〈論尹師魯墓誌銘〉：

근년에 들어와 古文이 師魯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范公(范仲淹)이 쓴 제문에 이미 언급되어 있으니, 서로 보충될 수 있어 중복해서 쓸 필요가 없었다. 皇甫湜은 韓愈의 묘지명을 썼고, 李翱은 한유의 行狀을 썼지만 반드시 같지는 않았으니, 또한 서로 보충하였던 것이다. (若謂近年古文自師魯始，則范公祭文已言之矣，可以互見，不必重出也。皇甫湜韓文公墓志，李翱行狀不必同，亦互見之也。)

歐陽修는 〈尹師魯墓誌銘〉에서 尹洙의 家世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尹洙 부친인 尹仲宣의 墓誌銘, 즉 〈尚書虞部員外郎尹公墓誌銘〉¹⁵⁾에서 상세히 언급했기 때문에 생략했음을 밝히고 있다. 즉, ‘互見’의 방법을 이용하여 제재를 선택하였다는 말이다.

〈論尹師魯墓誌銘〉에서는 皇甫湜이 韓愈의 묘지명을, 李翱가 한유의 行狀을 쓰면서 서로 보충하였던 것처럼, 歐陽修 자신도 근년에 들어와서 고문을 尹洙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지 않은 것도 范仲淹이 쓴 祭文에 이미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보충될 수 있으므로 중복해서 쓸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資政殿學士戶部侍郎文正范公神道碑〉¹⁶⁾에서도 “그의 世次官爵은 墓誌銘에 기록되어 있고 家譜에도 기록되어 있으며, 담당 관리도 보관하고 있어, 다 논하여 드러내지 않았다. 천하 국가의 큰일에 관한 것만 드러내었는데, 이것은 또한 公의 뜻이기도 할 것이다(及其世次官爵，誌於墓，譜於家，藏於有司者，皆不論著。著其繫天下國家之大者，亦公之志也歟)”라고 하

15) 《歐陽修全集·居士集》卷26.

16) 《歐陽修全集·居士集》卷21.

여, 世次官爵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 언급되어 있으므로 생략하였다는 것이다. 즉, ‘互見’의 방법을 택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內殿崇班薛君墓表>에서도 “薛塾 집안의 대대로 내려온 공덕은 簡肅公의 墓誌銘과 墓碑에 있다(薛之世德終始, 有簡肅公之誌與碑)”¹⁷⁾라고 하여, 집안의 공덕에 대해서 생략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미루어 볼 때, 歐陽修가 碑誌文에서 제재의 집중과 선택을 위하여 ‘互見’의 방법을 즐겨 썼음을 알 수 있다

물론 歐陽修가 이 ‘互見’의 방법을 모든 문체의 영역까지 철저히 지킨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歐陽修가 작품을 쓸 때 ‘互見’의 방법을 실제로 적용한 곳이 많지만, 그렇다고 일관되게 철저히 ‘互見’의 방법을 적용한 것은 아니다. 歐陽修는 자신과 관계가 깊었던 사람일 경우, 그 사람을 위해서 文集序나 詩集序·墓誌銘·祭文 등 여러 文體로 글을 썼는데, 이들 작품을 비교해 보면, 사실 중복된 서술들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그 한 사례로, 梅堯臣의 경우를 보면, <梅聖俞詩集序>에서 “予聞世謂詩人少達而多窮, 夫豈然哉? …… 然則非詩之能窮人, 殆窮者而後工也.”라고 하였고, 그의 墓誌銘인 <梅聖俞墓誌銘>에서도 “世謂少達而多窮, 蓋非詩能窮人, 殆窮者而後工. 聖俞以爲知言.”이라고 하여, 같은 내용을 거의 그대로 언급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어떤 특정한 사실을 강조할 경우 ‘互見’의 방법을 무시하고 반복해서 서술함으로써 주제를 부각시키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碑誌文의 경우, 歐陽修가 제한된 지면을 고려하여 ‘互見’의 방법을 즐겨 사용하였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3. 내용의 진실성 추구

문학사에 남긴 唐代 韓愈(768~824)의 업적 가운데, 가장 주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그의 碑誌文이다. 韓愈는 《史記》가운데 열전의 뛰어난

17) <歐陽修全集·居士集> 卷24.

표현력을 碑誌 속에 재생시킨 사람이다. 다시 말해, 韓愈는 단순히 의례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던 碑誌를 살아 숨 쉬는 인간의 이야기로 끌어올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韓愈가 墓誌銘이나 神道碑를 써서 많은 돈을 벌자, ‘諛墓(묘에 아첨한다)’라는 일화도 생겨났다¹⁸⁾. 고문운동의 지도자로서 명성이 높았던 한유에게 碑誌, 즉 신도비나 묘지명을 써달라는 의뢰가 친척이나 친구는 말할 것도 없고, 각계의 명사나 실력자들로부터 귀찮을 정도로 들어왔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료나 사례비도 그만큼 높았을 것이다. 원고료를 많이 내놓게 되면, 생전에 변변치 못했을 지라도 죽은 자를 위해 칭찬해주는 것이 인지상정이다¹⁹⁾. 劉叉가 “이것은 무덤속의 사람에게 아첨해서 얻은 것일 뿐(此諛墓中人得耳)”²⁰⁾이라고 빈정거렸던 것도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韓愈가 원고료를 생각하고 墓誌銘을 썼다가 나 없는 내용을 날조하여 죽은 사람을 칭찬했다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諛墓’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碑誌文은 잘못하면 그 사람의 사적이나 업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로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歐陽修는 <代人上王樞密求先集序書>에서 “군자가 학문을 함에 말로써 일을 싣고 문식으로 말을 꾸미니, 일은 진실 되고 말은 문식이 있어야 후세에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君子之所學也, 言以載事而文以飾言, 事信言文, 乃能表見於後世.)²¹⁾”라 하여, 작품의 내용과 형식에서 ‘일이 진실 되고 말에 문식이 있어야 한다(事信言文)’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일이 진실 되다’라는 말은 문장 내용의 진실성을 가리키고, ‘말에 문식이 있다(言文)’라는 말은 언어의 예술성을 가리킨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 보아야 할 점은 ‘일이 진실 된다(事信)’라는 점

18) 李商隱, <齊魯二生>: (劉叉, 不知畿所從來…… 既至, 賦冰柱雪車二詩, 一旦居盧仝孟郊之上. 樊宗師以文自任, 見人拜之, 後以爭語不能下諸公, 因持愈金數斤去… 曰. 此諛墓中人得耳, 不若與劉君爲壽. 愈不能止) 拙著 <韓愈> 195-197 페이지 참조.

19) 拙著 <韓愈> 196-198쪽 참조.

20) 주 18) 참조.

21) <歐陽修全集·居士外集> 卷17.

이다. 歐陽修는 碑誌類와 같은 傳記에 관한 글을 쓸 때는 ‘내용의 진실(事信)’이 생명임을 강조하여, 진실 그대로 써야지 ‘헛되이 미화하거나 진실에서 벗어나 지나치게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不虛美, 不溢惡)’고 강조하였다. 歐陽修는 이처럼 碑誌文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으므로, 진실 된 내용을 담고자 최선을 다하였다.

그런데 歐陽修가 <尹師魯墓地銘>을 쓰면서 尹洙의 고문운동에 관한 일은 한마디도 쓰지 않았다. 그러자 尹洙의 가족과 그를 이는 사람 가운데 尹洙의 중요한 업적의 하나인 고문운동을 그의 墓誌銘에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심하게 비난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歐陽修는 여기에 대해 <論尹師魯墓地銘>에서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다.

만약 ‘고문을 짓기 시작한 것이 尹師魯로부터였다’고 한다면, (尹洙에) 앞서 穆修·鄭條 같은 (古文을 지은) 사람이 있고, 또 宋나라 開國 이래로 (古文을 지은) 선배들이 많이 있으므로 (古文을 짓기 시작한 것이) 尹師魯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감히 단정할 수가 없다. …… 近年에 들어와서 古文이 尹師魯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范公이 쓴 祭文에 언급되어 있어서 보충될 수가 있으므로 중복해서 쓸 필요가 없었다. (若作古文自師魯始, 則前有穆修鄭條輩, 及有大宋先達甚多, 不敢斷自師魯始也. …… 若謂近年古文自師魯始, 則范公祭文已言之矣, 可以互見, 不必重出也.)

宋代에 들어와 ‘고문을 짓기 시작한 것이 尹洙로부터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歐陽修 자신으로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尹洙보다 앞서 穆修·鄭條 등과 같은 사람들이 이미 고문을 지었고, 또 宋代에 들어와서 여러 선배들도 이미 고문을 지었기 때문에 ‘고문을 짓기 시작한 것이 尹洙로부터였다’라고 쓴다면, 이것은 ‘진실’에 위배된다는 견해를 강력히 피력한 것이다. 사실 북송 때에 먼저 고문을 제창한 사람으로는 柳開(947~1000), 穆修(979~1032), 孫復(992~1052), 鄭條 등이 있었다. 고문을 제창한 것은 이들이 尹洙 보다 시기적으로 이른다. 그래서 歐陽修는 비록 尹洙를 존경하였지만, ‘고문을 짓는 것이 尹洙에게서 시작되었다’는 의견

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근년에 들어와 고문이 尹洙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만 인정하였다. 묘지명을 짓는 歐陽修의 태도가 얼마나 엄숙하고 진지하였나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歐陽修가 주장한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또 하나의 좋은 예를, 范仲淹의 神道碑銘²²⁾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慶曆新政²³⁾ 기간에 歐陽修는 富弼 등과 함께 개혁세력이었던 范仲淹 편에 서서 당시의 보수 세력이었던 呂夷簡 등을 반대함으로써, 서로 간에 많은 마찰을 빚었다. 훗날 范仲淹이 죽자, 歐陽修가 그의 神道碑銘을 썼는데, 이 神道碑銘에서 范仲淹과 呂夷簡 간에 있었던 대립들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난 뒤, 이어서 이렇게 썼다.

呂公이 다시 재상이 됨에 이르러 范公도 다시 기용되어, 이에 두 사람은 흔쾌히 서로 약속하기를 온 힘을 합쳐 적을 평정하자고 하였다. 천하의 선비들은 모두 다 이 일로써 두 사람을 칭찬하였다. (及呂公復相, 公亦再起被用, 于是二公歎然相約, 戮力平賊. 天下之士皆以此多二公.)²⁴⁾

歐陽修의 이러한 언급은 곧 바로 范仲淹의 아들 范純仁의 불만을 사게 되었다. 사실 위의 말은 呂夷簡과 范仲淹 두 사람 사이의 지속되어온 대립관계가 해빙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이 말을 쓴 歐陽修의 진정한 의도는 국가를 위해서라면,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도 기꺼이 화해할 수 있는 范仲淹의 넓은 도량을 강조하는 데에 있었다. 그리고 이 일은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고, 歐陽修는 또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과감히 읊었다. 歐陽修는 徐無黨에게 준 편지 〈與澠池徐宰〉에서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22) 《歐陽修全集·居士集》 卷20, 〈資政殿學士戶部侍郎文正范公神道碑銘〉

23) 慶曆 3년(1043)에 范仲淹이 10개 항의 개혁조치를 상소하자 仁宗이 전국에 반포하여 시행함으로써 개혁을 시도한 것을 말함.

24) 《歐陽修全集·居士集》 卷20, 〈資政殿學士戶部侍郎文正范公神道碑銘〉

呂公의 일을 서술함으로써, 范公에 대해서는 德量이 우주를 포함하듯 넓어, 그 충성심과 의로움이 국가를 위해 우선하였음을 보게 될 것이고, 呂公에 대해서는 각각 그 있었던 사실만을 기록하였으니, 만세토록 진실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이 원수관계였다고 밝혀, 그 사실을 각각 과장해서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여, 편파적인 말이라고 하는 것 보아야 나올 것입니다. (述呂公事, 於范公見德量包宇宙 忠義先國家 于呂公事各紀實, 則萬世取信, 非如兩仇相訟, 各過其實, 使後世不信以爲偏辭.)²⁵⁾

위와 같은 사실에서, 글을 쓸 때 내용의 진실성을 歐陽修가 얼마만큼 중시하였는지 알 수가 있다. 후세에까지 문장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진실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그의 철저한 원칙을 읽을 수가 있다.

심지어 사적을 잘 알 수 없는 사람의 墓誌銘을 부탁받았을 때에도, 歐陽修는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앞에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 <南陽縣君謝氏墓誌銘>이다. 歐陽修가 梅堯臣 부인 謝氏의 묘지명을 부탁받고, 어떤 내용을 써야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을 지 많은 고민을 하였다.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이 梅堯臣의 말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이었다. 사실 남의 부인에 관한 일은 그 남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작가 자신이 남의 아내에 관한 일을 이러쿵저러쿵 직접 서술하는 것보다는, 그 남편의 말을 통해 간접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진실감을 줄 수 있다. 歐陽修가 이 묘지명을 쓰면서, 시종 남의 말을 인용한 간접적 표현방법을 택한 것도 진실된 내용을 전하고자 하는 치밀히 계산된 의도에서였다.

III. 결 론

본고에서는 <論尹師魯墓誌銘>을 통해, 碑誌文에 대한 歐陽修의 창작이

25) 《歐陽修全集·書簡》卷7.

론을 ‘간결한 문체와 함축’·‘제제의 집중과 선택’·‘내용의 진실성 추구’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歐陽修는 <尹師魯墓誌銘>을 지을 때 ‘문체는 간략하고 뜻은 함축되게 (文簡而意深)’ 지었다고 스스로 밝힘으로써, ‘간결한 문체와 함축’이 碑誌文을 짓는 주요한 원칙의 하나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歐陽修는 尹洙의 墓誌銘을 쓰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간결하게 처리하였는데, 특히 尹洙의 문장과 학문·의론 방면에서 그러하였다. 그러나 간결하게 처리한다고 해서 아무 의미 없이 글자 수만 줄인 것은 아니며, 간략한 말 속에 깊은 의미를 함축시켰다. 예컨대, 尹洙의 문장에 대해서는 ‘簡而有法’하다고 네 글자로 요약하여 표현하였는데, 簡而有法’은 六經 가운데에서도 孔子가 친히 지은 《春秋》만이 거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孔子가 《春秋》에서 한 글자라도 함부로 쓰지 않았듯이, 歐陽修 자신도 <尹師魯墓誌銘>을 쓰면서 글자 한 자 한자에 신중을 기울여, 글은 간략하지만 그 말속에 부여된 의미는 깊다고 한 것이다.

尹洙의 학문에 대해서도 “通知古今”이라고 한마디로 요약하고, 孔子와 孟子만이 거기에 해당될 수 있다 하였고, 또 尹洙의 議論에 대해서는 “是是非非, 務窮盡道理乃已, 不爲苟止而妄隨(그는 남들과 이야기할 때 是是非非를 가려 이치를 철저히 따진 뒤에 그만두었지, 말을 하다 구차히 그만두거나 남의 말에 망령되이 부화뇌동하지 않았다.)”라고 하여, 孟子만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즉, 尹洙의 학문과 의론에 대해 서술은 간략하지만, 그 함축된 의미는 孔子와 孟子만이 尹洙에 비견될 수 있을 정도로, 尹洙를 칭찬한 말이라는 것이다.

<尹師魯墓誌銘>의 銘文에서도 歐陽修는 “藏之深 固之密 石可朽 銘不滅.”이라고 열 두 글자로 간략하게 썼는데, 이는 《詩經》을 쓴 사람들의 의도를 살려서 완곡하게 내용을 함축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즉, 銘文이 열 두 글자에 불과하지만, 거기에 함축된 의미는 깊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碑誌文이라는 문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문체는 간략하고 뜻은 함축

되게(文簡而意深' 지어야 한다는 이러한 歐陽修의 견해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 수는 있다.

하지만 글을 직설적으로 써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이 좋은지, 아니면 의미가 깊이 함축된 글이 좋은지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尹洙의 필법을 본받아 지나치게 간결함을 추구하고 '春秋筆法'을 강구하여 작가가 의도한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문제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제재의 집중과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歐陽修가 <尹師魯墓誌銘>에서 중점을 두고 서술한 것은 尹洙의 재능에 대한 서술이다. 尹洙의 재능에 대해 이처럼 상세하게 서술한 이유를, 歐陽修는 “천하 사람들이 尹師魯의 재능을 다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라고 하였다. 즉, 歐陽修는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尹洙의 문장과 학문 보다는 잘 알려지지 않은 尹洙의 군사적 재능에 대해 집중적으로 서술하여 천하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작가가 尹洙에 대한 많은 제재를 나열하는 것 보다, 꼭 필요한 제재를 집중해서 서술하는 것이 인물을 묘사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尹洙의 문장·학문·의론과 尹洙의 군사적 재능 중에서, 尹洙를 평가하는데 어느 것이 더 尹洙에게 적절하고 대표할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 尹洙의 입장에서 본다면, 군사적 재능보다 오히려 문장이나 학문이 더 높이 평가받기를 바랐을지도 모른다.

한편 歐陽修는 '제재의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尹師魯墓誌銘>을 쓰면서, 尹洙의 사적을 모두 다 열거할 수가 없어, 오직 '范仲淹을 변호하고 아울러 자신도 함께 폄적되기를 청한 일'과 '죽음에 임해서도 개인의 사사로운 일을 한 마디도 말하지 않은 것'만을 선택하여 서술하였다고 밝혔다. 사실 <尹師魯墓誌銘>에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가장 감동적이어서, 성공적인 제재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碑誌文의 경우, 자질구레하고 잡다한 일들을 상세히 쓰기 보다는, 대표적이고 중요한 일만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서술해야 훌륭한 글이 될 수 있다고 본 歐陽修의 견해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다.

‘제재의 집중과 선택’을 위해, 歐陽修가 사용은 또 하나의 원칙은 ‘互見(상호 보충해서 드러낸다)’의 방법이다. ‘互見’이란 말은 같은 사건을 여기 저기에 중복해서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돌에 새겨야 하는 碑誌文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간결함을 추구하면서도 주제를 강화시키는데, ‘互見’의 방법 또한 좋은 서술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墓誌銘을 지을 때, 家世·世次官爵·집안의 공덕 같은 것을 장황하게 묘사하는데 반하여, 歐陽修는 이 ‘互見’의 방법을 이용해 家世·世次官爵·집안의 공덕 같은 것을 과감히 생략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尹洙의 대표적 공적 가운데 하나인 고문운동에 관한 공적마저도 范仲淹이 쓴 祭文에 언급되어 있다는 이유로 과감히 생략해버렸다. 물론 이 경우 ‘互見’의 방법을 지나치게 적용한 느낌도 있지만, 歐陽修는 ‘互見’의 방법을 적절히 이용해 좋은 작품을 많이 남긴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碑誌文에서 제재의 집중과 선택을 위해, 적절히 ‘互見’의 방법을 운용하여 주제를 집중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이다.

끝으로 ‘내용의 진성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歐陽修는 碑誌類와 같은 傳記에 관한 글을 쓸 때는 ‘진실 된 내용’이 생명임을 강조하여, 진실 그대로 써야지 ‘헛되이 미화하거나 진실에서 벗어나 지나치게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不虛美, 不溢惡)’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碑誌文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歐陽修는 그 스스로 진실 된 내용을 담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 실례로, 歐陽修는 비록 尹洙를 존경하였지만, ‘고문을 짓는 것이 尹洙에게서 시작되었다’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근년에 들어와 고문이 尹洙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만 인정하였다. 이 일로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歐陽修는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

歐陽修는 또 范仲淹의 神道碑銘을 쓰면서, 정치적으로 심각한 대립관계에 있었던 范仲淹과 呂夷簡에 대해, 국가를 위해서 두 사람이 기꺼이 화해한 이야기를 과감히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일로 인해 范仲淹의 아들 范

純仁의 불만을 사기도 하였지만, 이 일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어서 歐陽修는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과감히 읊겼던 것이다.

이러한 여러 상황에서, 사실만을 기록하고자 한 歐陽修의 태도가 얼마나 엄숙하고 진지하였나를 알 수 있다.

< 參考文獻 >

- 歐陽修, 《歐陽文忠公集》, 商務印書館, 臺北, 1967.
——, 《歐陽修全集》, 世界書局, 臺北, 1983.
韓愈, 《韓昌黎集》, 河洛圖書, 臺北, 1975.
何寄彭, <歐陽修古文作法探析>, 《宋代文學與思想》, 學生書局 民國88.
洪本健, 《醉翁的世界 -歐陽修評傳- 》, 中州古籍出版社, 1990.6.
劉德清, 《歐陽修論稿》,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91.9.
曾子魯, 《韓歐文探勝》, 中國文學出版社, 北京, 1993.
陳蒲清注譯, 《歐陽修文選讀》, 岳麓書社, 長沙, 1984.2.
陳必祥注譯, 《歐陽修散文選》, 三聯書店, 香港, 1990.
杜維沫·陳新選注, 《歐陽修選集》, 上海古籍出版社, 上海, 1986.
吳小林, 《唐宋八大家》, 安徽人民出版社, 合肥, 1984.
關永禮主編, 《唐宋八大家鑑賞辭典》, 北岳文藝出版社, 1989.
程千帆·吳新雷, 《兩宋文學史》, 上海古籍出版社, 1991.
成復旺 等, 《中國文學批評史》, 上海古籍出版社, 上海, 1979.
敏澤, 《中國文學理論批評史》, 人民文學出版社, 北京, 1981.
周助初, 《中國文學批評小史》, 崧高書社, 臺北, 1985.
沙裕忠·章宗友, <論歐陽修的文學批評理論與實踐>, 《浙江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 1981년 제3기.
鄭孟彤, <歐陽修在宋代詩文革新運動中的地位和作用 -與姜書閣先生商榷>, 《文學遺產》, 1987.6.

- 宋衍申, 〈歐陽修治史的求實精神〉, 《中國歷史文獻研究集刊 제2집》
汪淳, 〈韓歐之性格比較研究〉, 《逢甲學報》, 제18기.
何寄澎, 〈唐宋古文運動中的文統觀〉, 《中外文學》 제14권 제1기.
金中樞, 〈宋代古文運動之發展研究〉, 《新亞學報》 제5권 제2기.
權鎬鐘, 《歐陽修詩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2.8.
魯長時, 《歐陽修 散文의 分析的 研究》, 영남대박사학위논문, 1995.2.
_____, 《韓愈》, 中文出版社 2004, 9.

〈中文提要〉

碑誌包括墓誌銘·神道碑·墓表等. 碑誌是記敘死者生平, 贊頌死者功德, 往往請德高望重者撰寫. 歐陽修名冠一時, 求作碑誌者特多, 歐陽修文集中有八十餘篇碑誌. 其中有一篇〈尹師魯墓誌銘〉.

〈尹師魯墓誌銘〉寫成以後, 尹師魯的家屬嫌其過簡. 一些後生小子也頗多非議. 於是歐陽修右撰〈論尹師魯墓誌銘〉, 對寫作這篇墓誌銘的意圖進行了分析·答辯, 文中對墓誌銘的寫作提出了一系列重要的理論問題.

歐陽修受尹師魯的影響, 墓誌銘這一類文章的寫作應該做到‘簡而有法’. 因為墓誌銘受銘刻條件的限制, 不可能把人物的所有事迹, 舉其要者一兩事, 所以要求對素材進行取捨·剪裁·互見. ‘簡而有法’的‘法’, 要有深刻的思想內容, 即恰當地把握用語的輕重褒貶, 講究含蓄而準確地表達思想, 不可作溢美之詞, 必須追求實事.

這些看法表現了歐陽修寫墓誌銘的嚴肅態度, 一反溢美諛墓的不良氣風, 但過於追求簡古, 其得失也值得商榷.

주제어 : 尹師魯墓誌銘, 論尹師魯墓誌銘, 簡而有法, 素材取捨, 互見, 追求實事